

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, 저장장애의심가구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청소 및 방역 추진

✎ 최병찬 기자 | ⓒ 승인 2023.07.19 14:33

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대상 가구 장마철 긴급 주거환경 개선



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, 저장장애의심가구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청소 및 방역 추진

[세계뉴스통신 최병찬 기자] 수원시 영통2동은 지난 18일 혹서기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저장장애의심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클린케어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 및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.

대상자 자택 내부는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방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어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들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.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, 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환경미화원, 동 직원들은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연막탄을 이용하여 바퀴벌레 등의 해충박멸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다.

또한, 동은 대상자의 위생적인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, 영통종합사회복지관,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일대일 매칭해 지속적으로 생활실태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.

공영화 영통2동장은 “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주거환경 취약가구의 집을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다.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상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최병찬 기자 13wndeo@naver.com

저작권자 © 세계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